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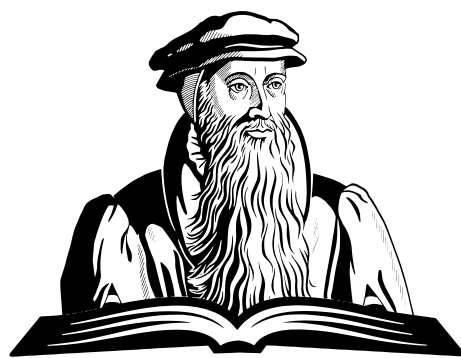
---

# 비디오 강의 학습 단계: 성경 신학

---

## 강의 8: 출애굽

강의 발표자: 로버트 맥컬리 목사님, M.Div



**The John Knox Institute**  
of Higher Education

존 녹스 고등 교육 연구소 우리의 개혁된 유산을 전세계 교회에 위임하며

**존 녹스 고등 교육 연구소**

우리의 개혁된 유산을 전세계 교회에 위임하며

© 2019 존 녹스 고등 교육 연구소

판권. 이 출판물의 어떤 부분도 출판사의 서면 허가 없이 검토, 의견 또는 장학금을 목적으로 간단한 인용을 제외하고는 어떤 형태로든 또는 이익을 위해 어떤 수단으로도 복제될 수 없습니다.

출판사, 존 녹스 연구소, P.O. Box 19398, Kalamazoo, MI 49019-19398, 미국

달리 표시하지 않는 한 모든 성경 인용은 공인 킹 제임스 버전으로 합니다.

웹사이트방문: <https://ko.johnknoxinstitute.org>

로버트 맥컬리 목사님은 스코틀랜드 자유 교회의 (continuing) 회중인 사우스 캐롤라이나 그린빌에 있는 그린빌 장로교회에서 복음목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www.freechurchcontinuing.org](http://www.freechurchcontinuing.org)

# 학습단계

## 성경 신학

30 강의

로버트 맥컬리 목사님 M.DIV.

21 장 구약 · 9 장 신약

### 구약 강의들

1. 소개
2. 창조
3. 타락
4. 노아
5. 아브라함
6. 족장 I
7. 족장 II
- 8. 출애굽**
9. 시내산
10. 성막
11. 희생제물
12. 제사장
13. 유업
14. 다윗
15. 시편
16. 솔로몬
17. 성전
18. 왕국
19. 예언자
20. 포로기
21. 회복

### 구약 강의들

22. 성육신
23. 속죄
24. 부활
25. 오순절
26. 교회
27. 연합
28. 삶의 적용
29. 사명
30. 영광

## 강의 8

# 출애굽

### 강의 주제:

하나님은 속박에서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분의 영광을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그것을 통해 구원의 계획을 계시해 주십니다.

### 본문: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마태복음 2:14-15).

## 강의 스크립트 8

만약 어떤 이스라엘 사람이 가나안으로 가고 있는데 그에게 누구냐고 묻는다면 그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타국에서 노예였으나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피난처를 찾았습니다. 우리의 중보자는 우리를 이끌고 나와서 구원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약속된 땅을 향해서 가고 있지요. 그런데 아직 거기에 이르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고 그분은 우리가 최종적인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우리를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말이 여러분에게 익숙한가요? 이것은 오늘날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또한 출애굽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이 강좌를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시는 한가지 방법은 바로 자신의 사역 자신의 행동 혹은 그 분이 하시는 일을 통한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결합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행동과 그 행동에 대한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창조와 홍수라는 엄청난 사건들을 속에서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리 놀라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모든 구체적인 것들을 주권적으로 다스리시되 자신이 우리를 위해서 이 계시를 기록하기 위해서 자신의 영감된 말씀을 주신대로 자신의 계획을 전개하십니다.

출애굽이라는 역사적인 사건은 구원역사 속에 있는 또 다른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줍니다. 구약성경의 나머지 부분은 지속적으로 이 사건에 주목합니다. 그리고 신약성경도 우리가 복음을 이해할 수 있도록 이 사건이 가진 의미를 추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출애굽의 신학을 분명하게 이해해야만 합니다. 이는 출애굽 사건이 성경과 복음의 핵심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구속역사에 대한 이 웅장한 스토리 안에서 출애굽이 있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자신을 자신의 백성과 세상에 나타내시기 위해서 어떻게 애굽으로부터의 구원사건을 사용하십니까? 왜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이 속박당한 상

태가 되도록 내버려 주셨을까요? 이 구약성경의 이야기 속에 구속이라는 복음의 주제가 어떻게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까? 이 출애굽의 이야기 속에서 모세는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이제 우리는 이 강의를 통해 출애굽 사건을 둘러싼 신학적 주제들에 대해서 생각해 볼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셨다는 말로 시작하겠습니다. 애굽은 아브라함에게 예언되었던 것입니다. 그 내용 전체가 출애굽의 배경을 제공합니다. 창세기15:13에 있는 말씀을 기억하세요.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사백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자, 이것은 우리에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제 생각에는 우리가 창세기와 출애굽기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알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은 반복해서 자신을 “조상들의 하나님” 혹은 “네 조상의 하나님” 아니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 나타내십니다. 또 창세기와 출애굽기1:7에서 가져온 후손에 대한 언급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브라함의 후손에 대한 약속은 그들이 애굽에 있는 동안 성취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70명의 작은 무리로 왔지만 애굽 전체를 가득 채울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위협을 느낀 바로는 그들을 노예로 만들어서 더 고통스럽게 속박하였습니다. 이렇게 구속과 구원을 위한 상황이 조성되었습니다. 남자 아기를 죽이려는 바로의 시도는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 사이에 전쟁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앞으로 쪽 가서 그리스도의 탄생 때에 헤롯이 남자 아기들을 죽이려고 해서 마리아의 남편이었던 요셉이 예수님을 애굽으로 데려간 후에 다시 돌아왔던 그 유사한 일을 기억합니까? 여기에 얽힌 모든 의미를 다 설명할 시간은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과 행동이 어떻게 서로 연결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보십시오.

출애굽기 1장에서 18장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또 행동하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 분의 말씀은 사건보다 먼저 일어납니다. 말씀과 행동은 기대와 믿음과 순종을 요청합니다. 하지만 첫번째 요점과 관련해서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에 대한 지식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내용에 대하여 우리가 배운 것을 강조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는 단순히 구원에 관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계시하고자 하는 목적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이스라엘을 해방시켰습니다. 이 사실은 불타는 가시떨기나무에서 분명하게 나타나고 그곳에서 하신 말씀은 출애굽기3장에 나옵니다. 또한 이것은 바로가 한 말을 통해서도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출애굽기5:2에서 바로는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재앙을 통해서 자연을 주관하시는 주권자요 애굽의 신들보다 뛰어나신 존재로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인도할 것이며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집트를 위한 것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퍼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출7:5)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이 지식은 단지 이스라엘이나 애굽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온 세상에 전파될 것입니다. 실제로 뒤에 나오는 여호수아서에는 멀리 떨어진 여리고성에 있는 창녀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호수아2:9,10에서 그녀는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을)... 들었음이라”고 말합니다.

요점이 무엇인지 알겠습니까? 출애굽기의 내용은 신학에 대한 것이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것들 중에 몇 가지를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계시된 것들을 봅니다. 이에 대한 아름다운 예는 그 분의 백성에게 선포된 그 분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에는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개념이 담겨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은 그 분이 누구인지에 대한 계시에 대해서 언급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이름은 단순히 그 분의 여러 명칭이나 이름을 드러내시는 것만이 아니라 자신의 속성과 자신의 말씀과 예배 그 분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시는 모든 방법을 가리킵니다. 바로 이와 같은 이유로 제3계명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또한 바로 이와 같은 이유

로 주기도문의 첫번째 간구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성경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출애굽기3:14에서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이것은 여호와라는 이름인데 이 이름은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주권적이시고, 그분은 언약의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이 이름에 담겨있습니다. 사실 여러분이 좀 더 넓게 출애굽기3:1-22을 읽어보시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임재에 대해서 1-4을 통해서 말씀하시며 5,6절에서는 자신의 언약에 대해서 7-9절은 동정심에 대해서 10-12절에서는 모세에게 주시는 사명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3-15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마지막으로 16-22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여호와라는 이름을 계시하신 것은 어떤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이 변화를 주목해야 합니다.

출애굽기6:2,3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라고 말합니다.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은 그 전보다 더 많이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하나님은 또한 자신의 대적들에게도 계시하십니다. 이미 살펴 보았지만 출애굽기4:5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지금 자신의 이름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고 계십니다. 지난 강의에서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은 출애굽기의 여러 장에서 자신을 주의 사자로 계시하십니다. 하나님의 얼굴과 임재와 더불어 주의 영광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시는 마지막 방식은 출애굽에서 드러난 이 구속의 행위와 결합되어 있는 그분의 행위와 이적과 기적을 통한 방법입니다. 그러나 이 방식은 어떤 규범적인 것은 아닙니다. 제 말의 의미는 어떤 사람들은 기적이 성경시대 전체에 걸쳐서 일어났다는 생각을 하고서는 이러한 놀라운 이적과 기적들이 지금도 지속적으로 일어난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어떤 특정한 시기와 시대에 일어난 일은 하나님께서 구속의 어떤 중요한 요소를 성취하는 행위입니다. 그러한 사건들에 대해서 이적과 기적이 동반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 구원하시는 행위가 수반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복음서에서 그리스도의 오심 그리스도의 성육신 그리고 그분의 모든 영광스러운 사역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러한 이적과 기적이 함께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목해야 할 것이 있는데 구원이 재앙이라는 심판을 통해서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우리가 이미 앞에서 다뤘던 주제입니다. 물론 재앙을 통해 애굽을 심판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의 구원은 물론이고 애굽이 얼마나 무기력한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재앙이나 유월절이나 홍해나 물과 구름 기둥 율법의 선포 광야에서의 공급 그리고 심지어 그들이 약속의 땅에 도착한 것들을 본다면 이 모든 것이 보여주기를 위해서 펼쳐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구속으로 돌아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이 사실은 두번째로 속박이라는 주제로 우리를 안내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시대는 많은 면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등장하지만 애석하게도 애굽의 속박으로 마칩니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약속이나 계획과는 반대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약속은 이번에도 닿을 수 없는 곳에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으로 다시 돌아가 보세요. 그들은 지금 그 약속의 땅이 아니라 애굽에 있습니다. 또한 축복이 아니라 노예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후손을 보기는커녕 바로가 그들의 남자 아이들을 죽이는 모습을 대면하고 있습니다.

애굽이라는 외국에서 포로생활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에 대하여 도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노예의 경험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영광스러운 계시를 위한 배경이 되었습니다. 결국 우리는 속박과 죽음에서 구속받아야 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누리야 합니다. 출애굽기2:23 마지막 부분을 보면 고난 가운데서 그들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소망을 주었습니다. 그 다음 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이 구절들과 주변의 말씀에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배운 것에 주목하세요. 하나님은 들으셨고 하나님은 기억하셨으며 하나님은 보셨고 하나님은 그들을 존중하셨습니다.

이것은 구속이라는 핵심적인 주제의 관점에서 볼 때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그 때도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은 죄에서의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압제와 고통에서 구원받아야 했습니다. 또한 우상숭배에서도 구원받아야 했습니다. 이 사실은 나중예언서24장과 에스겔23장에 가서야 언급됩니다. 하지만 애굽의 포로생활과 출애굽은 인류가 악의 세력에 포로로 잡혀 있으며 그 결과 그들을 죄의 노예상태에서 구속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구원은 속박에서 벗어나는 것에 대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였고 이는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우리는 죄의 노예였습니다. 사람들은 죄를 섬겼습니다. 죄가 그들을 지배했고 조정했습니다. 사람들은 죄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저항할 수도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우상의 노예로 살았습니다.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그 어떤 것도 우상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바로 이 속박의 상태는 불신앙에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새롭게 된 믿음을 가지고 돌아오는 배경을 제공해 줍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세번째 주제인 속죄로 우리를 안내합니다.

속죄는 속박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속죄라는 헬라어 단어는 “풀다” 혹은 “속박에서 놓이다”는 의미입니다. 노예상태에서 다시 그 전으로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출애굽기14:13, 14은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어떤 것을 발견합니까? 바로 그들이 피로 말미암아 구속된다는 사실과 피로 구속함을 받는 이 모든 개념이 출애굽 이야기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이 개념은 유월절에 대한 내용을 다룹니다. 우리는 희생제사에 대한 강의에서 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고 또 이 유월절이 주 예수 그리스도와 얼마나 관련이 있는지도 살펴볼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심판을 피하는 방법은 피흘림 밖에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주목해 보세요. 앞에 주어졌던 재앙은 고센에 있는 이스라엘과 애굽을 구분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출애굽과 함께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도 이 마지막 이적에서는 구속을 받아야 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장자가 죽음에서 구속되는 사건은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애굽에서 구속되는 것을 나타냅니다. 유월절 어린양은 대속물로서 대속적 속죄를 표현합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들의 자리를 대신하는 어린양인 것입니다. 이 사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실 것에 대하여 어떻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지는 명백합니다. 하나님의 어린양은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가십니다(요1:29)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속하고 죄의 속박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을 대신하여 죽음을 당하신 어린양입니다. 이사야43:1,3에는 “야곱아”라고 말한 후에 “이스라엘아”라고 부르고는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대저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네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속박에서의 구속과 구원에 대한 전체적인 조망 안에 있는 대속물이라는 개념이 여기에 나옵니다. 이는 영혼이 처해 있는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한번 구속을 받은 주님의 백성들이 로마서 6:14에 언급됩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죄는 결코 주인이 되어 여러분을 다스리거나 노예로 삼지 못할 것입니다. 히브리서11:29은 홍해를 건넌 것이 기독교 신앙에 대한 전형(paradigm)이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노아 시대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통해서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다시 한번 물이 등장합니다. 이스라엘은 마른 땅을 통해서 안전하게 홍해를 건넌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그들을 쫓았습니다. 그러자 물이 그들을 덮쳤고 그들은 모두 익사당했습니다. 물에 잠긴 이 모습도 역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표지입니다.

이 모든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리는 자유에 대한 주제를 제시합니다. 더이상 노예도 아니고 속박된 상태도 아닙니다. 이제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자유롭게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탄과 어둠의 왕국에서 구출되어 그리스도와 소위 약속의 땅이라는 빛의 왕국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들은 사탄을 주인으로 하는 사탄의 가족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출애굽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요점 중에 하나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 내용은 하나님의 장대한 스토리 전체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구속의 목적이 예배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이미 창세기 초반에 대해서 할 때 보았습니다. 그 이후로도 이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목적은 자신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질 한 백성 예배를 통해서 자신을 섬길 한 백성을 자신에게로 데려오는 것입니다. 구속은 이 목적을 위한 수단일 뿐입니다. 여러분은 출애굽 이야기에서 바로 이 사실을 봅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자신을 예배하고 자신과 함께 거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출애굽기4:23에서 모세는 바로에게 바로 이 사실을 말합니다. “내 아들을 보내 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이 말은 나를 예배하게 하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홍해의 다른 편에서 그 절정을 이룹니다. 결과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은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합니다. 이 내용은 우리를 위해서 모세가 출애굽기15장에서 부른 그 영감어린 노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노래는 하나님의 언약적 신실함을 높이 찬양하는 노래였습니다. 이 노래는 출애굽기의 가운데 부분에 있을 뿐만 아니라 제 생각에 이 노래는 여러면에서 이 전체 이야기의 중심에 해당됩니다.

15:13에 있는 이 노래에 이런 내용이 있는 것을 봅니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여기서 “인자”라는 말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헤세드”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중요한 구약의 언어이며 당신이 알아야만 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지속적이고 변하지 않는 언약적 사랑을 의미합니다. 이 단어는 구약성경의 다른 부분에서도 등장하는데 아주 중요한 곳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나타냅니다. 여러분은 이 단어가 시편과 같은 곳에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특히 이 단어가 시편 136편의 모든 구절에 계속 반복해서 사용되고 있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5:24에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출애굽의 모습을 담고 있는 장면을 보세요. 이사야51:10,11에도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속받은 자들을 건너게 하신 이가 어찌 주가 아니시니이까 여호와께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보자와 같은 신학적인 주제에 대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중보자를 통해서 속박에서 구속 받았습니. 모세의 사역은 인간도구로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구속하시는 일에 사용되었습니다. 모세의 역할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드러내고 암시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실은 신약성경에도 여러 곳에서 나타납니다. 말하자면 그는 구원자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구원자입니다. 그는 40년간 애굽에 살았고 40년간 미디안의 광야에 살았으며 그 다음 40년은 시나이 이후로 광야에서 이스라엘과 함께 지냈습니다. 당신은 모세의 믿음과 순종에 주목하게 됩니다. 히브리서11장은 모세에 대해서 그가 바로의 딸의 아들이라고 불리기를 거절했다고 말합니다. 바로 여기에도 세상과의 분리를 보여주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대신 모세는 잠시 죄가 가져다주는 즐거움을 즐기기도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선택했습니다. 바로 여기서 거룩이라는 주제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습니다.

모든 것의 중심에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모세는 애굽 너머 심지어 히브리인들과 자신이 함께 당해야 하는 고통 너머를 보았습니다. 그는 모든 것 너머에 계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읽는 중에 우리의 시선을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떼서는 안 됩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들 사이에 섰습니다. 또한 그는 하나님과 국가들 참으로 하나님과 당시의 모든 피조세계 사이에 섰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으실 때 그 분은 모세를 통해서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환상이나 다른 것들을 통해서 직접 바로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어 바로 앞에 서게 하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섰다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분의 백성에게 돌아왔습니다. 모든 기적들도 모세를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모세와 그리스도 사이에는 대조되는 것도 있고 연관성도 있습니다. 모세는 오실 중보자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과 같습니다. 히브리서3:3은 “그(그리스도)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고 말합니다. 모세는 더욱 위대한 중보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켰습니다. 그 분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요 완전한 인간이었습니다. 뒤에 나오는 출애굽기32:32에는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바로 모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에 중보자에 대한 모습이 보이죠? 하지만 모세와는 달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죄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리스도는 자신의 백성들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진노의 홍수 아래에 잠겼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재앙이 주 예수 그리스도 위에 임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책에서 그 이름이 지워지지 않았습  
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주 예수 그리스도는 더 뛰어나고 위대하며 더 영광스러운 중보자로서 바로 모세가 그저 그림자 속에서 가리켰던 분입  
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중보자라는 주제를 봅니다.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중보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통  
해서 자신의 백성을 속박에서 구속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출애굽기가 단순히 육신적인 구속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실 것입니다. 그것은 영적인 구  
속이었습니다. 결국 애굽은 우상과 사악함이 가득한 장소였습니다. 바로도 하나의 신이자 사악한 압제자로 여겨졌습니  
다. 이스라엘은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구속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들도 나중에 바  
벨로의 포로에서 벗어나는 두 번째 출애굽을 경험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궁극적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신약성경의 시작 부분인 마태복음2:14에는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  
을 이루려 하심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 아들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누가복음9:30,31에 보면 변화산에서 있었던 일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문득 두 사  
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여기서 주목하세요.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새”

여기서 “별세”라는 헬라어는 문자적으로 “출애굽(Exodus)”이라는 말입니다.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새” 이 헬라어 단어는 “출애굽”이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그  
리스도에게 다가올 죽음에 대해서 말하는데 이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성취하실 것은 궁극적인 출애굽 하나님의  
백성들을 죄와 죽음의 속박에서 궁극적으로 구원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저 흥미로운 이  
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과 위대한 출애굽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출애굽이라는 사건  
을 반드시 구속역사에 있는 하나님의 장엄한 계획과 연결시켜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성경은 애굽에서의 종살이를 고통의 용광로로 묘사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표현을 신명기4:20과 이사  
야48:10에서 발견합니다. 세상의 속박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구속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불타오르게 하십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시내산과 율법의 수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  
다”(레11:45)